

지령 1000호의 공덕으로 나날이 향상하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열악한 교계의 언론환경에서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불법홍포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현대불교신문 가족의 공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갈등과 다툼이 여전하고, 그에 따른 이웃의 고통과 아픔이 곳곳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와 비불자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맑게 하는 다정한 벗이었

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 이렇듯 나눔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기여는 스스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 선업을 잘 계승하여 더욱 깊은 감동과 활발한 정론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사시 구현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된 현대불교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은 언론을 통한 정보

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하여 천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해 왔습니다. 또한 불교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전 방위적 불법홍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교 교리 연구와 보급, 신앙생활, 각 종단 관련 단체 소식을 전하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령 1000호를 맞이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우리의 정신문화를 더욱 높이고, 부처님의 진리를 가장 격조 있게 전할 수 있는 불교 언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전문직필로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천상의 달처럼 중생계에 범공양한 노고 치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1994년 10월 불교계 언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창간된 현대불교의 지령(紙齡)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20년 동안 중생계를 향해 범공양 올린 그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허공에 달이 떠 천의 강을 비추면, 강마다 달이 떠 천겁(千劫) 세상이 밝아지듯이 현대불교는 매주 환한 달을 하나씩 띄워 천겁 중생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현대불교는 매 호마다 시대를 통찰하는 혜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

는 길을 열어 주었고 흥미롭고 유익한 기획으로 마음공부의 알뜰한 도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는 1000호의 내공을 다짐돌로 더욱 친근하고 유익한 신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초발심의 정진으로 '불교홍양' 큰 뜻 이루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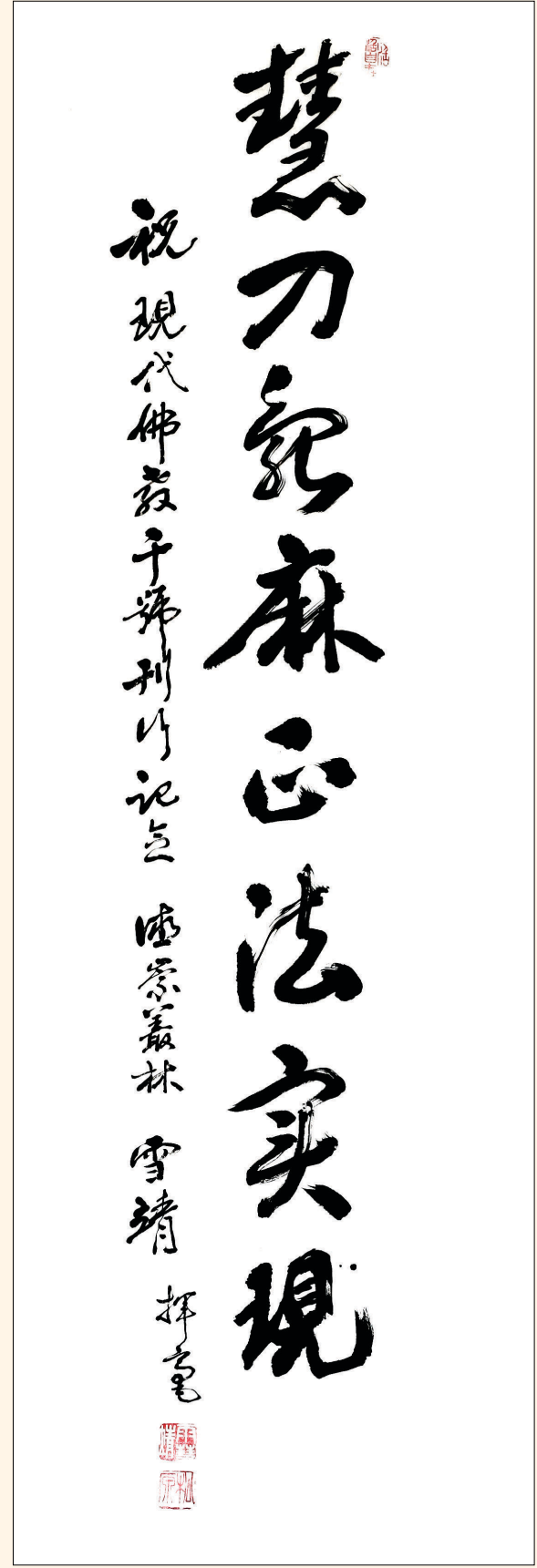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그러하여 앞으로의 미래는 물질과 정신문명의 철저한 조화 속에서만이 그 상상과 발전을 예견

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막중한 책무와 함께, 이제 지령 1000호를 맞아 '불교 홍양'이라는 큰 뜻을 품고, 초발심의 정진으로 매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서 계속해서 풍성하고 유익한 정보로 불자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시길 기대하며 현대불교신문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하여 복지구축 하시길 서원합니다.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 휘호

慧刀亂麻 혜도난마
正法實現 정법실현

“복잡하게 얽혀진 부조리들을 지혜의 칼로 모두 잘라버려 세상에 바른법을 널리 실현시켜라”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현대불교신문 지령 1천호를 축하하며 춘철살인 같은 깨달음의 휘호를 내렸다. 감로수같은 맑고 향기로운 글들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려 세상에 목탁같은 존재가 되라는 큰 가르침이다.

포교지 정체성 잃지 말고 함께 정진하자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천 번의 신문을 만들어오며 한국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1994년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은 불교계의 새 활력인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창간과 함께 불교 서점 <여시아문>, 불교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를 구축해 불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바로 현대불교신문이 했던 불사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포교를 알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불교언론의 전범이기도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지령 1000호는 미래의 시대를 열어가는 큰 전환점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국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당시 내걸었던 그 가치를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지령 10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끊임없는 정진으로 불교 발전 이끌어 주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현대불교신문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 써주신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현대불교는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하고, 그에 대한 심층적 해설로 다양한 기획물을 연재하며 불교 전문 매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보도로 우리 사회와 종단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대안과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참 언론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 그리고 세계화를 목표로 끊임없이 정진하기를 바라며 한국 불교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현대불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시비비 정확히 가리는 정론지 되길 발원

조계종 균종교구장 정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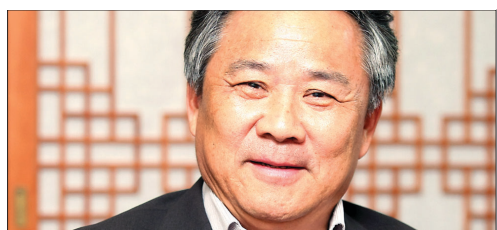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지령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날부터인가 물질의 풍요가 복(福)된 인생인줄 알면서 살아온 날들이 허망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양의 한마음선원장 이셨던 대령 스님이 이 사회와 불교계에 햇볕을 들어 어둠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등불의 원력을 드러내셨습니다.

此時(此時)이라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독자들에게 단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잘못된 것은 솔직히 지적해 주는 언론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다양한 신행과 문화활동의 대변자 역할 당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현대불교신문의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창간하여 불교계에 첫선을 보인 지 어느새 20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령 1000호 발간이라는 영광스러운 이 날이 오기까지 한결같은 불심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여러분에게 큰 박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은 다양한 신행과 문화활동을 비롯하여 정법의 대변자로서 문서포교, 인터넷 포교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행을 바탕으로 불교의 사회에 대한 참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끊임없는 포교에 앞장서시길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 우리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대한불교 종정단. 고승단. 종단. 대중사. 자문단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대한불교 종단총연합 협의회.

제 6회 7월 29일 각료 임명식 & 대중사 품수 수여식

오후 3시 정각 / 하림각 : 02)396-2442 종로구 부암동 162-3

각종단 종정큰스님, 총무원장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의 행이 필요합니다.

승려들의 수행 풍토 쇄신을 도모하여 불교의 질적 성장과 정화와 개혁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
1080명의 숨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각료 임명**과

※ 350여 군소종단이 하나되어 **합동 금강계단 품수**를 지속적으로 봉행하고자하니 뜻이 있으신 스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장관급 각료 명단

불원 보각 해승 대봉 도명 해선 대풍 성각 지암 도암 혜월 현담 경오 영각 남륜 청운 돈조 보현 대경 도안 법상 도월 대연 해운 송현 진관 지우 종선 도암2 능허 태봉 청산 성군 정오 법현 지암2 향운 보성 법성 송운 도연 경현 동월 법인 법광 제성 법지 송몽 법주 도일 구암 심오 해광 석담 원광 청광 해상 해관 도경 성보 보명 현덕 보운 무량수 혜정 법조 해공 성범 지연 다정 구암 혜일 석장원 보현2 범용 지훈 법상2 각운 정음 선명 해륜 해진 이한규홍보실장 금조 목성 만근 외 500인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합장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법왕청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02)733-5671. H·P 011-229-6061